

### 8백년 전통 ... 44개의 컬리지

# 英 옥스포드大 (Oxford University)

1249년부터 최근까지 설립된 44개의 컬리지로 구성된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는 역대 영국 수상의 절반을 배출한  
 명문교로 모든 영국인들이 마음의 고향처럼 동경하는 대학교이다.  
 대학이 가장 사랑하는 1602년에 설립된  
 보드레이안 도서관은 7백여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50여명의 한국 유학생과  
 20여명의 교환교수 및 박사후연구과정생들이 있다.

있는 건물의 80% 이상이 대학교 건물이  
 거나 학교 소유의 건물이므로 도시 자체  
 가 학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이다.

#### 시내건물 80%가 대학건물

옥스포드에 학교가 세워진 유래는 12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옥스포드는  
 앵글로-색슨시대에 테임즈강을 건너는  
 건널목 마을로 시작되었다. 12세기 후반  
 헨리 2세에 의하여 파리 대학에서 공부  
 하는 것이 금지된 영국의 학자들은 서로  
 토론하여 학문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곳  
 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배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그 수가 점차 증가하였고 시간  
 이 지날수록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 사이  
 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최초의 컬리지(College)가  
 설립되었는데 학생들은 모두 컬리지 안  
 에서 사감의 감독하에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컬리지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은 신학자 및 성직자 양  
 성과 함께 왕족 및 귀족 자녀의 교육을  
 맡게 되었다. 당시 왕족과 귀족들은 많  
 은 재산을 컬리지에 기부하였는데 지금  
 도 몇 개의 오래된 컬리지는 굉장한 부  
 동산 부자여서 소속 학생들에게 주는 혜  
 택이 대단하다. 컬리지제도는 케임브리  
 지(Cambridge), 더함(Durham) 그리

영국의 학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역대 영국 수상의 절반을  
 배출한 학교, 화학의 기초 개념인 보일-  
 샤를의 법칙을 발견한 보일이 있었던 학  
 교, 모든 영국인들이 마음의 고향처럼  
 동경하는 학교, 바로 옥스포드대학교이  
 다. 옥스포드(Oxford)는 런던에서 서쪽  
 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  
 그만 도시로서 영국의 어느 도시와도 다  
 른 독특한 개성을 가진 도시이다.

영국 사람들이 옥스포드를 일컬을 때  
 꿈꾸는 침탑의 도시(City of Dreaming  
 Spire)라고 부르는데 이는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을 염두에  
 두고 부르는 말이다. 건축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 1평방마일  
 안에 6백개 이상 있을 만큼 도시 전체가  
 문화재이고 박물관인 셈이다. 그 명성  
 때문에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찾아드는 관광도시이며 옥스포드시에

#### 정 지 환

(英 옥스포드大 공학부 박사후연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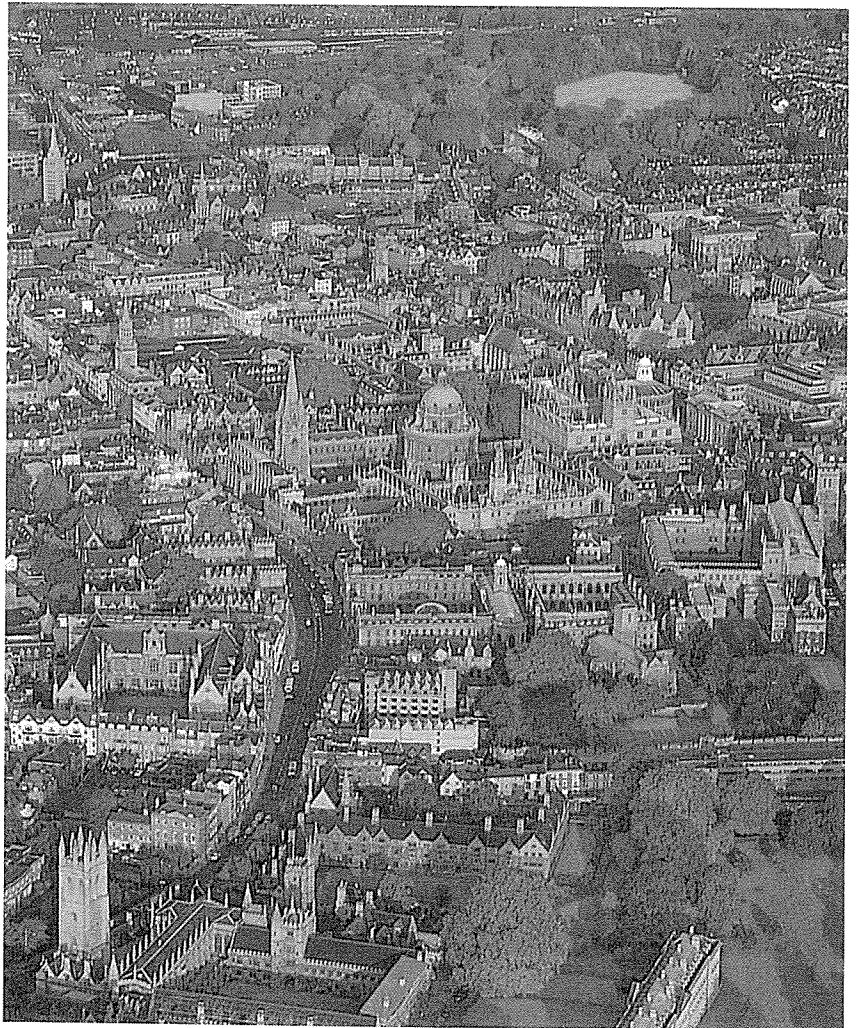
고 옥스포드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써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옥스포드대학교는 현재 1249년부터 최근까지 설립된 44개의 컬리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옥스포드대학교의 학생들은 이 중 하나의 컬리지에 소속된다.

대학과 컬리지는 학생들에게 완전히 분리된 책임을 가지게 되며 각 학생들은 대학과 자기 소속의 컬리지로부터 받는 각종의 혜택과 수업을 통하여 옥스포드대학을 경험하게 된다. 학부 학생의 경우 그 선발권이 전적으로 각 컬리지에 있으므로 옥스포드대학교에 학부 학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컬리지에 응시하여 입학 허가를 받게 된다.

### 학생 선발권은 컬리지에

각 컬리지는 소속 학생에 대하여 숙소, 식사, 공동 휴게실, 도서관, 스포츠 시설, 사회활동시설 등을 제공하며 컬리지 안에는 영국식 주점이 있어서 공부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질은 각 컬리지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지도 방식이다. 각 컬리지는 개인교습(tutoring)방식을 통하여 소속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이는 모든 옥스포드대학 생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 수업은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과 담당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tutor)가 매주 한 번씩 만나 지난 일주일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다. 다음 일주일간의 학습 과제는 학생의 학습 결과와 능력에 따라 주어지므로 학생이 공부한 만큼 진도가 나가게 되어 학생이 성실하면 다른 대학의 대학



▲ 옥스포드대학 전경

원생이 배운 것 이상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사실 그 정도의 학습 능력을 보인 소수의 졸업생에게만 대학원 진학이 허용되므로 옥스포드에서 학부를 마친 대학원생은 교과과정 없이 바로 논문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교사들 역시 컬리지 소속의 교수 및 대학원생이므로 특정 분야의 전공 교수가 그 컬리지에 많을수록 학생은 그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컬리지가 이처럼 학생의 실생활에 밀착되어 있어서 자기 소속 컬리지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시내를 활보하는

학생들의 티셔츠를 보면 옥스포드대학 이름은 볼 수 없고 대부분 자기 컬리지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닌다. 한편 대학교(University)는 좁은 의미의 중앙 기구로서 각 컬리지가 학생들의 소속 학과에 맞추어 가르쳐야 하는 학과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원생의 선발권은 컬리지가 아닌 대학이 가지게 되는데 소속 컬리지가 없는 다른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컬리지에게 학생을 받아들 것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소속 컬리지가 정해진다. 대학원생은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혹은 고가의 실험 장비를 이용하거나 대학 소유의 도서관 및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게 되므로 컬리지가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곳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 도서관 장서 7백만권 소장

옥스퍼드대학교가 국제적인 학문적 명성을 쌓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대학 출판사이다. 대학 출판사는 대학의 교수들이 학문 전 분야에 걸쳐 쓴 책이나 논문들을 출판함으로써 그들의 연구 결과와 학문적 업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사전은 영어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학 출판사는 95~96 1년동안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이중 약 1/3을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영국 여왕으로부터 수출상을 받기도 하였다.

옥스퍼드대학이 가장 자랑하는 시설은 도서관이다. 컬리지가 오래된 만큼 각

컬리지가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도 오래 되었으니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 중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희귀본들이 많이 있다.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1602년 11월에 설립된 보들레이안 도서관이다. 현재는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공학 및 과학도서관, 법학도서관 등 전공 분야에 따라 8개의 부속 도서관과 각 학과에 도서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격인 보들레이안도서관은 영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서 현재 약 7백만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어 옥스퍼드대학 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학교에는 몇 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무료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어서 옥스퍼드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1683년 영국에서 최초로 대중 관람이 허용된 애쉬몰리안 박물관은 선사시대 유물로부터 현대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귀품을 소

장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명성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1683년에 문을 열어 역사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과학 기구를 모아 놓은 과학사 박물관, 공룡화석, 곤충, 광물 등을 모아 놓은 대학 박물관, 인류 문화에 관련된 소장품을 전시한 피트리버스 박물관 등이 있다.

박물관에 소장된 전시물의 대부분이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모아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학 컴퓨터센터와 함께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과 연구원 그리고 교수들에게 정보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튼튼한 허부구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옥스퍼드대학이 주는 인상은 인문과학의 연구 업적이 탁월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대로 학교의 설립 초창기에 신학, 철학, 그리고 고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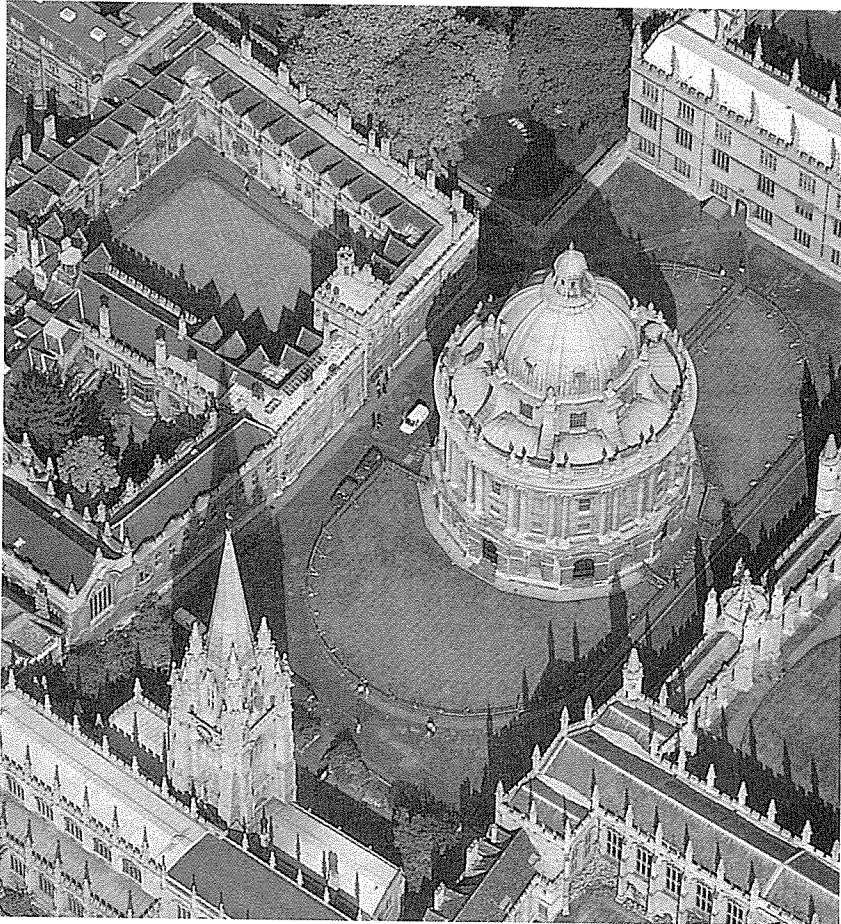
문이다. 현재도 고전, 영문학, 철학이 인문과학분야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고학, 지리학, 법학, 경제학, 음악, 신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앞서 소개한 박물관들이 필요할 만큼 소장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옥스퍼드대학의 고고학, 인류학, 그리고 지리학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언어, 철학, 예술 등을 연구하는 고전학과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최고의 연구



MERTON COLLEGE, OXFORD

▲ 컬리지제도는 케임브리지·더햄·옥스퍼드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옥스퍼드대학은 현재 44개의 컬리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은 머튼컬리지



▲ 옥스포드대학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 중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희귀본들이 많이 있다. 사진은 옥스포드대학 도서관

를 하고 있다. 옥스포드대학을 케임브리지 대학과 비교할 때 옥스포드는 인문과학, 케임브리지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가 활발하다는 인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학교는 항상 경쟁관계에 있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앞서 말한 서로의 강점이 뒤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러한 현상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물리학과 의학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며 공학, 생물 관련 과학, 및 응용과학의 분야도 최첨단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물리학과 의 경우 70명의 교수진과 1백70명의 박사 후 연구과정(Post-doc.) 그리고 2백여명의 대학원생이 물리학 전반에 걸쳐서 연

구를 수행중이다.

### 人文강세... 한국 유학생 500여명

재료공학을 제외한 나머지 공학분야는 모두 Engineering Science학과로 통합 운영되는데 이 안에는 화학공학, 토목공학, 정보공학, 제어공학, 전기공학, 의공학 그리고 기계공학분야가 각각의 연구그룹 단위로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그룹 조직은 각 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상호 그룹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어 각 학문간의 협조가 필요한 현대의 기술개발동향에 적절한 구조이다. 각각의 연구그룹은 대부분 국내외의 첨단기술 관련기업으로부터 연구기금을 받아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

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문적 연구 결과를 빨리 산업체에 전달하고 있다. 예로써 기계공학 연구그룹은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로부터 장기간 막대한 연구 자금을 지원받아 제트엔진 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며 제어공학 그룹은 첨단 계측 장비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옥스포드시 외곽에는 대학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기업과 공장이 있는 공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러더포드-이플턴과 하웰국립연구소가 있어서 산·학·연 공조를 이루고 있다.

옥스포드에는 현재 50여명의 한국 유학생들과 20여명의 교환교수 및 박사후 연구과정들이 있으나 학위 취득후 영국에서 활동 중인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옥스포드대학의 비개방적인 성향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옥스포드대학의 시험 때가 되면 시내 거리에 검은색 사각모자와 가운을 입은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아직도 시험 때와 매주 있는 정식 만찬시간에는 양복 차림에 사각모자와 가운을 입은 전통을 지켜 내려오고 있다.

식당에는 교수만 이용할 수 있는 식탁이 단상 위에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교수들의 입장 및 퇴장시에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기립한다. 이렇게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큼 외국인 입학에는 배타적이었으나 최근 영국 경제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면서 수업료를 내는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의 옥스포드대학 교수들은 한국 유학생들이 보여준 특유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후 이곳에서의 유학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97